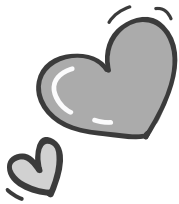




대안가정

통권40호 (계간) <http://www.daeanhome.org>

2. '비정규 무기계약직' 처우를 받는 이동그룹홈 종사자
4.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6. '해맑은친구들의집' 이야기
8. 해맑은아이들의 까치 까치 설날은...
10. 창립 11주년 후원행사 안내
12. 회비(후원) 내역
13. 대안가정운동본부 재정 및 소식
14.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 및 소식
15. 해맑은친구들의집 재정 및 소식
16. 후원안내



가·정·이·필·요·한·아·이·들·의·보·금·자·리·대·안·가·정·운·동·본·부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3. 4. 2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8길 102 / 전화 (053) 628-2592 / 전송 (053) 628-2595

‘비정규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받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김명희 사무국장

1.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아동그룹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의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460개소(2011년 12월 현재)의 그룹홈이 있고, 이중 416개소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아동그룹홈(이하 그룹홈)은 7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돌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소규모 생활시설로 법적 명칭은 ‘공동생활가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족공동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2명의 종사자가 아동의 보호, 훈육, 교육, 자립지원은 물론 행정, 가사, 노무까지 업무 영역이 방대하다. 따라서 그룹홈 종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 위기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문성까지 겸비해야 하며, 사명감 또한 투철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그룹홈 종사자는 타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른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연간 인건비가 19,073,000원(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료 포함)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액은 월 1,35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10년 이상 종사한 시설장이나 갓 입사한 보육사나 동일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며,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도 2011년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전까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서울,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비특별수당 하나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그룹홈 종사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기준의 기능직 1호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 1호봉에도 못 미치는 급여이다. 또한 근무년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법도 없다.

똑같은 사회복지사가 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생활복지사로서의 처우를 받는데, **그룹홈에 근무하게 되면 기능직(1호봉)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그룹홈 종사자가 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룹홈 종사자의 **잦은 이직은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양육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그룹홈 종사자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그룹홈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연간

19,073,000원으로, 이는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개인운영시설이 대부분인 그룹홈에서는 종사자 2인(시설장과 보육사)이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다. 법인운영시설 그룹홈의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에서 보전해주는 곳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금하는 어이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그룹홈 종사자는 사실상 “비정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시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임금 인상은 하지 않는 즉, 고용은 안정되어 있으나 임금 인상은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실태를 조사함은 물론, 최소한의 조치로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지자체는 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아동복지시설 시비종사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대구시도 2012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과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의 ‘2013년 아동복지 시비특별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를 시비종사자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홈 종사자에게는 이 수당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시비특별수당이 지원된 것도 대구지역 그룹홈 종사자들이 2년여를 부단히 요구하여 마침내 대구시의회에서 결의해주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가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위의 수당들을 지원할 경우, 1억8천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소관인 호봉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구시는 그룹홈 종사자에게도 대구시의 ‘아동복지 시비특별지원’을 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시비종사자수당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실제 급여수준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생활지도원 1호봉 수준으로 여전히 열악하다. 하지만 대구시가 그룹홈 종사자에게 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시비종사자수당을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대구지역 16개소 그룹홈에서 헌신하는 32명의 그룹홈 종사자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www.sunnychild.org

▶ 도운이가 태권도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개구쟁이 도운이가 8살이 되어 배우고 싶어 하던 태권도와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도운이 학원비용은 엄마가 직접 지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도운이는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하지만 기초체력이 없어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집중해서 공부를 한 날에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자면서 코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여 기초체력이 길러져서 튼튼하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끈기 있게 해야 하는 피아노도 열심히 하여 도운이에게 멋진 특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피아니스트 영찬이를 꿈꾸며...

영찬이가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뮤직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서순화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음악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과 관련된 취미를 가지도록 돕고,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칠 때면 연주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대경험을 쌓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찬이는 뮤직바이러스를 통해 주1회 피아노 개인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마하여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께 한곡쯤 연주해보이겠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를 열었습니다.



▲ 시설장회의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를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열었습니다. 행정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여러 사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 이사한 집을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해주셨습니다.

▶ 준희가 사시교정수술을 했습니다.

준희가 사시교정수술을 했습니다. 7살에 사시교정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초점이 맞지 않게 되어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며 준희가 훌쩍 자란 것 같았습니다. 수술한 눈이 자리를 잘 잡아 예쁜 준희 눈이 더 아름답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 수술은 무사히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준희

▶ 영찬아~ 생일축하해!



▲ 영찬이 생일 축하한다^^

영찬이 생일이었습니다. 그간 작은 말썽을 부리며 이모를 힘들게 하던 영찬이가 올해 들어 얼마나 예쁜 영찬이가 된지 몰라요. 말썽부리는 것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런 현상이긴 하지만 혹여나 습관으로 자리잡을까봐 노심초사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하나하나 반듯하게 잡혀가는 영찬이가 요즘 많은 기쁨이 되어줍니다. 영찬아! 지금처럼 착하고 씩씩하게 예쁜 영찬이로 자라주렴!

▶ 태호야~ 생일축하해!

남자들만 사는 삭막한 집에서 큰 딸 노릇을 해주는 태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중3이 되어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합니다. 결정권은 태호에게 있기에 안내만 할 뿐이지만 태호가 잘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이모를 도울 일이 없나 살필 줄 아는 따뜻한 태호의 마음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태호의 앞길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태호야! 생일축하해~

「해맑은 친구들의 집」 이야기

www.sunnyfriend.org



☆ 학습멘토링

두산연강재단, 일주문화재단의 멘토링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학습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혜윤이는 두산연강재단, 초등학생은 일주문화재단에서 경북대학교 재학중인 멘토선생님 3명과 3그룹으로 주 1회 수학교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경북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



☆ 전학

그룹홈이 이사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전학을 했습니다. 집에서 빠른 걸음으로 10분쯤 가야하는 학교는 다소 멀게 느껴지지만 학년별 2학년으로 전체 학급수가 적어 그 만큼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친밀한 분위기입니다. 새 학급에서 친구도 금세 사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아이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출발! 키도 쑥쑥 크고 인성도 바르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 신한장학생 & 현대백화점 교복지원

혜윤이가 신한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신한장학생은 교육비, 급식비, 컴퓨터가 지원되며 학업성적만 유지되면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천서를 비롯하여 스스로 고심해서 쓴 자기소개서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후 최종 선발되어 장학금으로 4월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혜윤이의 동복이 작년 겨울부터 단추가 안 잠겨서 어떻게 2년을 입나 걱정을 했는데, 그룹홈협의회를 통해 현대백화점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복을 다시 구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윤아~ 이번에 다시 사는 교복은 졸업할 때까지 입자~~



☆ 자살 예방 교육

해맑은아이들의집 식구들과 해맑은친구들의집 식구들 모두 모여 자살예방교육원 김영란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자살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존중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스스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기, 주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초1 동생부터 중3 형님까지 같이 교육을 받다보니 부산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준 아이들! 참 잘 했어요^^*



☆ 학교 참관수업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참관수업이 있었습니다. 4명이 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 누구한테 먼저 갈지 고민에 빠진 이모에게 학교에 일만 있으면 ‘꼭 오세요!’ 라고 하던 단비, 다혜는 이제 쿨하게 “이모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요~” 라고 제법 언니 같은 말을 해서 큰 아이들은 패스~~ 같은 학년인 혜원이, 은경이는 가장 대중적이고 공정한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은경이 참관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은경이는 공부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 윤숙이모 축 결혼

해맑은친구들의집 윤숙이모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있으면 어김없이 차량운행을 해주셨던 마음 착한 분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아이들 모두 함께 가서 축하했습니다. ‘윤숙이모 행복하세요’ ^^

☆ 앞산공원 나들이



봄기운이 만연한 앞산에 다녀왔습니다. 휘날리는 벚꽃 잎을 맞으며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요. 겨우내 추위에 움츠리다가 맞이한 봄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던지!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실컷 운동하고 실컷 먹고.. ㅎㅎ 앞으로 운동 삼아(?) 자주 다니기로 했습니다.

☆ 혜윤'S BIRTHDAY

사랑하는 혜윤아, 너는 윤시윤에 푹 빠져 이모들을 곤잘 까먹지만 이모들은 그래도 괜찮아.. 너의 열다섯번째 생일, 우리 가족 모두 축하해! 몸도 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가 되길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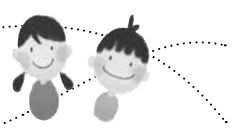
해맑은 아이들과 해맑은 친구들의 짜치짜치 설날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픈 희망으로 가득찬 새해를 해맑은아이들의집과 해맑은친구들의집 가족이 설 명절 행사로 함께 보냈습니다. 부침개를 굽고, 만두도 빚고, 이것저것 먹거리들로 상을 차려 함께 나눴습니다. 설행사의 하이라이트!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설날을 함께 보내주신 이수형, 이병희, 박한배 키다리아저씨들께 감사합니다.





해맑은 친구들의 집 이사했습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이 LH공사 다가구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사 간 해맑은아이들의집을 부러워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 2월에 이사한 새집은 이전 주택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전망이 좋습니다. 차가 없는 해맑은친구들집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근에 큰 마트가 있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지 않아도 되어 학원 마치고 늦게 오는 아이가 있어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다행히 지나는 차들이 많지 않아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은 방이 4개나 되지만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이 좁아 티비로 창문을 가렸었고, 화장실이 한 개 뿐이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유난히 눈비가 잦았던 지난 겨울에는 강추위로 인한 연료비의 부담, 결로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안전의 문제가 다급해져 LH 임대주택 공고 후 사전 답사부터 이사 결정까지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소지 변경이지만 행정절차상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이유로 이모들과 큰엄마(김명희 사무국장)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새로운 집에 감동하는 아이들과 업그레이드된 환경에 수고의 보람을 누렸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보일러실,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을 가리는 건물이 없고,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나 있어서 집 전체가 밝고 통풍이 잘 됩니다. 옥상도 제법 넓고 깨끗하구요. 큰방은 초등학교생 3명이 쓰고, 중간 방은 언니들 2명이, 작은방은 이모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 한 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두어 거실 한켠에 PC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ㅎㅎ

이사 온지 두 달 남짓 지났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온 가족 대청소날도 부지런히 청소를 하며 집을 가꾸고 있습니다. 집이 넓어지니 아무래도 이전보다 각자의 영역이 넓어졌는데도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주인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해맑은친구들의집 식구들이 환하고 밝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10년은 이곳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레미제라블 & 철가방코미디극장

매년 아이들과 함께 꾸며가는 후원행사 음악회! 올해도 빠질 수는 없겠죠??

올해의 음악회는 [해맑은아이들의 레미제라블 & 철가방코미디극장]으로 꾸며집니다. 2012년 한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영화이자 뮤지컬인 '레미제라블' 을 우리 해맑은 아이들이 갈라쇼 형식으로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부르기 힘든 곡들이 많지만 해맑은아이들은 올해의 무대도 멋있게 꾸미기 위해 매주 이모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행사에 와주셔서 응원해주세요^^



함께 노래부러요



다혜의 솔로



영찬이와 단비의 듀엣

행사안내

- ◎ 일시 : 2013년 05월28일(화) PM 7:30
- ◎ 장소 :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 ◎ 공연내용
 - ① 여는무대 : 김명희
- Fantine's Death(전반부)
 - ② 여성중창단 : 벨레스텔레 여성중창단
- I Dreamed a Dream / - In My Life / - 앙코르곡 1곡
 - ③ 영상 : 11주년 홍보영상(해맑은아이들의 성장기)
 - ④ 해맑은아이들의 합창
- Castle On a Cloud / - Master Of The House / - On My Own
- Drink With Me / - Do You Hear The People Sing
- We Are Young(앙코르곡)
 - ⑤ 코미디극장 : 전유성의 철가방코미디극장
 - ⑥ 피날래 : 전 출연진
- ◎ 티켓은 1장당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티켓의 수익금은 아동그룹홈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을 떠나며

- 윤미란 -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곳에 입사하여 아이들과 생활하였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 있어 이 시간들은 잊지 못할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이 곳도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로 아쉽게 아이들과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 곳을 떠나려고 하니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들에게 왜 조금 더 편한 이모가 되지 못했었나?',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었나?' 등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였던 것들에서 '조금 더' 라는 후회가 밀려듭니다. 아마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저와 함께 생활하는 것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를 제일 싫어하였던 준혁이가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원래 싫어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준혁이에게 나지막히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고...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때는 저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꿈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며 살아 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빛나 이모께 감사했고,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김명희 국장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 합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 이모들께도 감사했습니다. 그 외 저를 알고 저를 위해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이 글로써 대신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맑은이모"가 된 류명희입니다.

- 류명희 -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생활한지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 아침 준비를 위해 앞치마를 하고 방을 나섭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로 잠을 깨우고, 아침뉴스와 함께 아이들의 아침을 열어줍니다. 주방에서 아침 메뉴를 위해 조리기구들과 협력하여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며 인사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지라 서로의 입맛이야 당연히 다르겠지요. 처음에는 열심히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모, 맛이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정성을 먹는 거야." 라고 말하며 등교를 도왔더니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성을 먹는다고 제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합니다.



매일 벗어내는 옷가지들에 세탁기는 열심히 돌고 또 돌고, 설거지와 싱크대 정리가 끝나면 거실, 주방 청소가 시작되고 한참을 하다보면 세탁기가 다 돌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구김이 가기 전에 빨래를 재빨리 바구니에 담아 옥상까지 용을 쓰며 올라가서 빨랫줄에 탁탁 털어 줄지어 인사시킵니다. 그리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쏟아지는 햇살에 기미 걱정은 잠시 던져놓고 행복을 충전합니다. 하던 청소를 마무리 하면 벌써 오전이 모두 지나갑니다. 점심 먹을 힘까지 모두 소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늘어진 몸을 주섬주섬 챙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업무에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쳇바퀴 속에 가끔씩 끼이는 가시에 아파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용기를 주고 파이팅을 외쳐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식구(食口)니까요! 이상 해맑은아이들의집 새 식구(食口) 씩씩한 이모 류명희였습니다.

■ 회비 및 후원내역(2013년 1~3월)

이사회비

김규원	90,000
김사열	400,000
박한배	300,000
배성우	60,000
배순균	90,000
송광익	240,000
우병걸	70,000
이병희	360,000
이수형	600,000
이왕욱	150,000
이태원	150,000
정영숙	150,000
차학태	150,000

정회원 회비

권일섭	20,000
김명희	60,000
김봉섭	30,000
박범환	150,000
이국진	30,000
이담	150,000
이문기	150,000
이재용	40,000
이춘희	90,000
장중호	60,000
정미옥	150,000

후원회원 회비

강경희	20,000
강안숙	10,000
강한우	60,000
고석	30,000
고현우	30,000
곽운섭	20,000
권무현	30,000
권영학	30,000
권영활	15,000
권웅한	10,000
권응추	100,000
권점숙	30,000
금자경	60,000
기산약품	30,000
김경현	30,000
김관우	30,000
김광미	10,000
김광연	30,000
김구	30,000
김기택	150,000
김길중	30,000
김낙원	30,000
김낙욱	30,000
김덕걸	30,000
김명희	20,000
김미경	20,000
김미라	30,000
김미자	30,000
김봉구	30,000
김상기	15,000
김상률	15,000
김수득	30,000
김순자	30,000
김쌍호	750,000
김영남	15,000

김영도	30,000
김영학	30,000
김원규	90,000
김원희	30,000
김은미	30,000
김은형	30,000
김은숙	30,000
김이숙	90,000
김재수	30,000
김점순	30,000
김정락	20,000
김정민	10,000
김중열	15,000
김진	30,000
김진석	90,000
김진수	30,000
김창규	30,000
김채출	30,000
김초자	100,000
김항림	30,000
김현애	15,000
김현옥	30,000
김현익	30,000
김호근	15,000
김희호	30,000
나일웅	30,000
노영희	40,000
대구케이불방송(주)	300,000
대원포장기(주)	120,000
도교건축사무소	120,000
도광식	30,000
동조철강(주)	90,000
동진산업(주)	60,000
류은경	10,000
류정열	60,000
메리츠화재	691,000
문옥희	30,000
문우경	30,000
박광림	60,000
박기덕	60,000
박나연	30,000
박동준	20,000
박만근	30,000
박미경	30,000
박미영	30,000
박병수	20,000
박선아	20,000
박성실	30,000
박순우	90,000
박신연	30,000
박연희	60,000
박옥란	30,000
박우연	30,000
박은진	60,000
박의환	90,000
박익순	20,000
박정식	150,000
박종호	30,000
박천훈	30,000
박혜숙	90,000
반야월교회	500,000
배명식	30,000
배성호	6,000,000
배성훈	60,000
배태순	60,000

배현석	30,000
백석환	60,000
백이웅	60,000
백종규	60,000
변기동	30,000
삼성목.금형산업	20,000
서경희	60,000
서대현	60,000
서진천(온피부과)	100,000
성진인더스트리	30,000
손병혁	20,000
손혁준	30,000
송경진	30,000
송계무	40,000
송중환	30,000
송창섭	30,000
신동업	30,000
신화금기(주)	60,000
심금석	60,000
안승규	60,000
안화석	30,000
양재우	90,000
연푸드	30,000
예병열	30,000
오세창	15,000
오찬형	15,000
오현주	30,000
와이디테크(주)	150,000
우연조	30,000
웰성(주)	60,000
위희탁	30,000
유은주	20,000
유정옥	30,000
윤순영	20,000
윤영철	10,000
윤정은	40,000
윤정희	30,000
은완수	30,000
이동욱	40,000
이동진	60,000
이동원세무회계사무소	30,000
이미숙	30,000
이범섭	15,000
이병호	15,000
이보경	30,000
이상훈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30,000
이승미	30,000
이연생	60,000
이영옥	40,000
이영찬	15,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유미	15,000
이일영	40,000
이재수	20,000
이정숙	30,000
이주용	30,000
이진복	60,000
이진욱	20,000
이창훈	60,000
이철훈	30,000
이한주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용	60,000
이희도	30,000
임복순	30,000
임연수	90,000
임영진	30,000
임익성	15,000
임현락	30,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장삼철	150,000
장영규	30,000
장윤미	30,000
장호덕	30,000
전영웅	30,000
전영평	30,000
전재현	60,000
전재호	30,000
전제환	80,000
전순환	30,000
정경란	60,000
정연기	60,000
정용성	40,000
정재석	30,000
정한교	30,000
정한기	30,000
정혜경	30,000
정혜영	30,000
구교청	50,000
정화석	30,000
정희우	10,000
조영교	30,000
조재학	90,000
조재희	20,000
조정자	30,000
조행도	150,000
주은비	30,000
채승욱	30,000
채종해	30,000
천종근	20,000
최경호	20,000
최영재	90,000
최원창	30,000
최정숙	30,000
태광공업사	60,000
태영경	30,000
하다영	60,000
하정옥	60,000
하현열	60,000
한미숙	60,000
한은희	30,000
허만우	200,000
허영은	60,000
허유희	30,000
허해정	30,000
홍경자	30,000
홍동표	20,000
홍석진	30,000
홍후근	150,000
효선건설(주)	60,000
TCN대구방송(주)	400,000

특별후원

박한배	100,000
이병희	890,000

이수형 639,000

그룹홈 후원

대백선교문화재단	600,000
이승희	15,000
장영성	15,000
평화기공(주)	211,070
평화오일씰공업(주)	88,930
황윤선	20,000

일반후원

신한아름인포인트	253,381
이마트단체지원	3,845
해피빈	4,000

해맑은아이들의집 후원

사)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900,000

강은향 30,000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100,000

남대구세무서 100,000

박진구 90,000

이운영 30,000

정용태 150,000

해맑은친구들의집 후원

고용노동부	200,000
구교청	40,000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100,000
그룹홈협의회 (난방비 및 교복비)	842,000
이운영	30,000
임인섭	180,000

물품후원

< 해맑은아이들의집 >

또래오래: 후라이드치킨, 음료

나형진: 저녁식사, 찜닭, 치킨, 분식, 과일

이왕욱: 쌀, 떡국, 호떡, 햄버거, 치킨, 자장면, 짬뽕, 당수육, 음료, 라면, 김치

진정자: 떡볶이, 찜만두, 치킨, 갈, 음료

평화홀딩스: 배, 사과

방역지원본부: 상품권 30만원

< 해맑은친구들의집 >

한국구세군: 예전우시장 상품권 520,000원

그룹홈협의회: 도서 8권, 인형 4개

상수도사업본부: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서일교회: 쌀 20kg

우병걸: 장롱 12자

이왕욱: 식사제공 (햄버거, 짜장면), 라면 2상자, 쌀 40kg, 굴 1상자, 김 1상자, 떡국, 과자

2상자, 아이스크림 2통

정운기: 의류

■ 대안가정운동본부 재정보고 (2013년 1월~3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23,260,000	사무비		15,848,785
회비	회비	23,260,000	인건비	인건비	12,798,480
	이사회비	2,810,000		급여	10,590,000
	정회원회비	930,000		상여금	1,478,000
	후원회원회비	17,891,000		사회보험료	730,480
	특별회비	1,629,000		업무추진비	194,000
후원금		1,211,226	회의비	194,000	
후원금	후원금	1,211,226	운영비		2,856,305
	일반후원금	261,226	여비	219,000	
	그룹홈후원금	950,000	수용비및수수료	1,449,835	
차입금		19,000,000	공공요금	258,240	
차입금	차입금	19,000,000	제세공과금	604,960	
	기타차입금	19,000,000	차량비	324,270	
전입금		29,707,000	사업비		50,699,475
전입금	전입금	29,707,000	일반사업비		50,699,475
	기본재산편입금	14,707,000	대안가정지원사업비	448,410	
	기타재산편입금	15,000,000	출판홍보사업	418,180	
잡수입		63,000	후원사업비	2,162,515	
잡수입	잡수입	63,000	회원사업비	100,000	
	기타잡수입	63,000	그룹홈지원사업비	47,570,370	
			전출금	7,360,000	
			전출금	7,360,000	
			해맑은아이들의집	3,490,000	
			해맑은친구들의집	3,870,000	
총계		73,241,226	총계		73,908,260
전년도 이월금		1,759,703	잔액		1,092,669
합계		75,000,929	합계		75,000,929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

- 민해영 상담원 입사 (1/2)
- 아동그룹홈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 (1/31)
-김명희 사무국장, 고빛나, 설윤숙 참석
- 이사회 및 정기총회 (2/14)
- 아동그룹홈 TF모임 (2/15)
-김명희 사무국장, 설윤숙 시설장 참석
- 그룹홈협의회 이사회(2/19)
-김명희 사무국장 참석
- 아동그룹홈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 (2/21)
-김명희 사무국장, 고빛나, 설윤숙 참석
- 그룹홈협의회 정기총회(2/26)
-김명희 사무국장, 고빛나 시설장 참석
- 아동그룹홈 TF모임 (3/7)
-김명희 사무국장, 설윤숙 시설장 참석
- 아동그룹홈 종사자 성교육/그룹홈종사자모임 (3/8)
-김명희사무국장, 고빛나,양지은,류명희 참석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 (4/1)
-사무용컴퓨터 지원
- 공동모금회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수행설명회(4/19)
-민해영 상담원, 설윤숙시설장

후 / 원 / 안 / 내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과 '해맑은친구들의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대구은행 : 068-05-005600-9
- 국민은행 : 602-01-0688-119

- 농 협 : 718-01-176941
-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은 7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과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 「해맑은 아이들의 집」 재정보고
(2013년 1월~3월)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3,490,000	사무비		14,431,930
전입금		3,490,000	인건비		12,392,280
법인전입금		3,490,000	급여		8,635,000
후원금		1,400,000	상여		1,022,500
후원금		1,400,000	제수당		1,624,000
지정후원금		900,000	퇴직연금		286,750
비지정후원금		500,000	사회보험부담금		824,030
보조금		15,841,280	업무추진비		201,000
보조금		15,841,280	회의비		201,000
인건비		14,881,280	운영비		1,838,650
운영비		960,000	수용비및수수료		957,810
입소자부담금		9,500,450	공공요금		439,880
입소비용수입		9,500,450	제세공과금		230,960
입소비용수입		9,500,450	차량비		210,000
잡수입		10,498	재산조성비		1,042,370
예금이자		498	시설비		1,042,370
기타잡수입		10,000	자산취득비		1,042,370
			사업비		9,172,832
			운영비		5,514,720
			생계비		1,902,350
			수용기관경비		1,095,660
			피복비		610,500
			의료비		168,210
			특별급식비		1,222,250
			연료비		515,750
			교육비		2,676,980
			학용품비		20,770
			학습지원비		2,588,710
			이미용비		67,500
			사업비		981,132
			가족친화		550,832
			심리상담및치료		5,300
			자립지원		425,000
			보조금 반환		2,441
			보조금 반환		2,441
			보조금 반환		2,441
총계		30,242,228	총계		24,649,573
전년도 이월금		1,260,765	잔액		6,853,420
합계		31,502,993	합계		31,502,993

■ 「해맑은 아이들의 집」 소식

- 윤미란 보육사 퇴사 (2/28)
- 류명희 보육사 입사 (3/1)
- 꼬꼬데이 (2/1, 3/1, 4/1)

■ 아이들 소식

• 태호 - 아빠 만남 (2013.2.8~12/ 3.30)
설 명절을 맞이하여 태호가 아빠와 친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반듯하게 성장해가는 태호의 모습을 보며 어른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생일이 되어 아빠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답니다.

• 태호 - 고모 만남 (2013.2.25~27)
방학 말미에 태호가 고모를 뵙고 싶어 하여 고모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모께서 위탁하여 키우느라 정이 많이든 고모는 오래간만에 태호를 만나니 반가우셨다고 합니다. 고모를 만난 후 태호의 표정이 한껏 밝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 동진 - 멘토가정을 다녀왔습니다. (2013.2.8~12/222-25)
설 명절과 방학을 맞이하여 동진이가 멘토가정을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진이를 키워주시던 대안 가정 김하수, 조미옥 부부께서 동진이의 입소 후 멘토가정으로 남아 아이를 지지하며 친척집 역할을 해주신답니다.

• 준희 - 아빠 만남 (2013.2.8~12)
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와 영화를 보고, 축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 영찬 - 아빠 만남(2013.2.8~12)
영찬이가 아빠와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영찬이는 그동안 아빠의 직장으로 인해 명절 때 못 만나는 것을 서운해 했었는데 이번 명절로 서운함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 도윤 - 초등학교 입학 (2013.3.4.)
언제까지나 어릴 것 같던 도윤이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년 남자아이들 중 가장 작아 걱정되기도 하지만 영민한 아이라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준혁 - 엄마 만남 (2013.2.22~25)
설 명절에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모와 명절을 보낸 준혁이가 엄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 현민 - 어린이집 입학 (2013.3.4.)
입소 후 적응하느라 4개월간 집에서 일상생활 훈련에 집중한 현민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였습니다. 놀이감이 많은 어린이집이 좋은지 울지도 않고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친구들의 집」 재정보고
(2013년 1월~3월)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 산액	관 항	목	결 산액
전입금		3,870,000	사무비		15,183,960
전입금		3,870,000	인건비		11,704,500
법인전입금		3,870,000	급여		8,910,000
후원금		1,392,000	상여		1,040,000
후원금		1,392,000	제수당		1,204,000
지정후원금		1,362,000	사회보험부담금		550,500
비지정후원금		30,000	업무추진비		27,000
보조금		15,841,280	회의비		27,000
보조금		15,841,280	운영비		3,452,460
인 건 비		14,881,280	여비		34,400
운영비		960,000	수용비		2,573,600
입소자부담금수입		6,029,850	공공요금		804,460
입소비용수입		6,029,850	제세공과금		40,000
입소비용수입		6,029,850	재산조성비		353,240
예금이자		1,325	시설비		353,240
예금이자		1,325	시설비		154,000
			자산취득비		199,240
			사업비		6,553,311
			운영비		4,166,530
			생계비		1,967,510
			수용기관경비		871,090
			피복비		188,200
			의료비		49,400
			특별급식비		782,000
			연료비		308,330
			교육비		1,190,120
			학용품비		129,300
			도서구입비		267,000
			교통비		200,000
			학습지원비		414,500
			이미용비		122,000
			기타교육비		57,320
			사업비		1,196,661
			가족친화		199,600
			상담및 치료		10,800
			자립지원		986,261
총계		27,134,455	총계		22,090,511
전년도 이월금		1,846,770	잔액		6,890,714
합계		28,981,225	합계		28,981,225

「해맑은 친구들의 집」 소식

- 소재지 변경 (2/1) 달서구 → 남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선정(4/1)
-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에어컨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남구청 실사 (4/11)
- 국제외이즈멘얼파클럽 장학금전달 (4/11)
- 남구청 이동복지시설 회계관련교육 (4/17) - 설윤숙 시설장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실무자모임 (4/17) - 양지은 보육사

■ 아이들 소식

• 설날 친 가정 만남 (2013.2.8~2.11)

설을 맞이하여 혜운, 은경, 혜원이는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냈고, 단비, 다혜는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돌아 왔습니다. 아이들은 명절동안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아주 기분 좋아 했습니다.

• 은경 - 아빠 만남 (2013.3.17)

은경이는 매달 둘째 주에 만나던 아빠를 셋째 주로 변경하여 만났습니다. 아빠랑 영화도 함께 보고 이마트 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 혜원 - 아빠 만남 (2013.3.17)

혜원이가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혜원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는데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랑 자전거도 타고 저점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단비, 은경 상담

단비와 은경이가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지원센터의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생님과 1:1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와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MS 출금이체신청서 (신규, 변경, 해지)

◆ 수납기관 및 요금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명	자동이체 사유	금 액	비 고
대안가정운동본부	후원금	원	통장기재: 대안가정운동본부

◆ 납부자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납부자 번호(고객번호)	이체개시 년월	지정 출금일
년 월	○5일 ○15일 ○25일	

◆ 출금이체 신청내용

신청인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국민은행 <input type="checkbox"/> 농협 <input type="checkbox"/> 우리은행 <input type="checkbox"/> 신한은행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 <input type="checkbox"/> 제일은행 <input type="checkbox"/> 외환은행 <input type="checkbox"/> 씨티은행 <input type="checkbox"/> 광주은행 <input type="checkbox"/> 전북은행 <input type="checkbox"/> 제주은행 <input type="checkbox"/> 경남은행 <input type="checkbox"/> 부산은행 <input type="checkbox"/> 대구은행 <input type="checkbox"/> 신협 <input type="checkbox"/> 우체국 <input type="checkbox"/> 수협		
지정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예금주명		예금주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아래 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금주 동의란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 필요. (*)날인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거래날인, 서명 사용.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정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이 신청시)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 사람에게 CMS출금이체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위임자)

구비서류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 실명확인증표 사본
 예금주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계약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에게 한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